



## 임실군, 박남용 신덕면장 퇴임

임실군 신덕면 박남용 면장의 퇴임식이 지난 21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삼민 군수, 이성재 군의회 의장, 기관·사회단체장, 동료 직원과 가족,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퇴임식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박남용 신덕면장의 업적을 회고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공직에 헌신해 온 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기념했다.

축하 연주 및 직원들의 축하 영상이 펼쳐졌으며, 공로패 및 꽃다발 수여, 격려사, 퇴임 인사, 기념 촬영과 기념품이 전달됐다.

1994년 7월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박 면장은 운암면장, 환경보호과장 등을 거쳐 지난 2023년 1월 신덕면장으로 부임했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각종 현안과 숙원사업, 민원,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으며 공직 생활 마지막을 지역 주민과 현장 속에서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했다.

삼민 군수는 격려사에서 “30여년간 임실군의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공로에 무한한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며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요청하며 축사를 같았다.

/임실=진충영 기자



## 장수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장수경찰서가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장수경찰서는 21일 김홍훈 서장, 각 과장, 안보자문협의회 김숙희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장수경찰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보 경찰 활동 사항 등 협력단체와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숙희 회장은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협력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시작지 대가 없도록 장수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 지원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홍훈 서장은 “안보자문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주민 단합·공동체 활성화 첫걸음

## 군산 개정면 아산마을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사업' 선정

군산시 개정면 아산마을(이장 체삼영)이 전북특별자치도 삼락농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4년 생생마을 만들기(기초단계) 사업에 선정되면서 올 5월부터 본격적인 변신에 들어갔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고유의 체험, 관광, 전통, 문화, 경제 자원 등을 활용하여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자체나 정부가 아닌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여 화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선정된 아산마을은 먼저 마을민들기를 위한 주민역량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민들에게 마을 사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을의 환경을 해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다수가 참여해 경관개선과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가운데 21일 아산마을은 주민 단합과 공동체 활성화의 첫걸음을 기념하는 아산마을 기념식을 열고 서로를 치하했다.

기념식에는 개정면장을 포함해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준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및 주민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체삼영 이장은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생생마을 사업에 참여했다”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생생마을 만들기의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만들기 사업을 차곡차곡 추진하여 살기 좋은 아산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바램을 덧붙였다.

한상봉 개정면장도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아산마을이 출향인, 관광객, 귀농인이 찾아오는 우수마을이 되어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마을로 틈바꿈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진안군서 '무진장 그라운드 골프대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서는 지난 22일 공설운동장에서 2024년 무진장 그라운드 골프대회(진안군체육회 주최·진안군그라운드골프협회 주관)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안군과 인접한 무주, 장수 그라운드 골프 동호인들 200여 명이 참가하여 상호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겨루고, 친목도 도모하는 만남의 장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대회결과, 개인전에서는 우승 김경복(무주), 준우승 이종관(장수), 3위 오경자(진안), 장려상 우영순, 백천웅, 정석현이 차지했다. 단체전은 1위 무주군, 2위 진안군, 3위 장수군에게 돌아갔다.

정봉운 진안군체육회장은 “무진장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통해 진안을 찾아주신 무주·장수 동호인들께 환영의 인사와 함께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진안군 그라운드 골프협회 김영배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진안에서 맛있는 음식도 즐기며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남원 송동면-부산진구 가야2동, 자매결연 체결

남원시 송동면(면장 노일환)은 24일, 부산진구 가야2동(동장 김영미)과 송동면 회의실에서 두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장, 밭전협의회장, 이장협의회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지역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교류 △지식·정보 공유 및 공동 관심사 적극 지원을 통해 상호 보완 관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앞으로 양 기관은 지역 축제 및 관광명소 홍보,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노일환 송동면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등 송동면민과 가야2동 주민이 세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 김제 용지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캠페인 펼쳐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이장협의회와 함께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지초등학교 앞까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과 유해환경 개선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진행됐으며, 용지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고 청소년에게 유익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일실지사 010-9842-2725
인후지사 246-6855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6-1227	진안지사 433-3064
설천지사 255-2404	설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6-3787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순평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효지지사 010-8645-9935	의산지사 868-9923	고성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김제 백산면, 100세 어르신에 장수 축하물품 전달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백세 장수어르신 축하물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00세가 넘은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세 장수어르신 축하물품 지원사업은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인미기, 발 마사지기, 찔질기, 제습기 등 50만원 상당하는 장수 축하물품을 지원해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김제시 신규 사업이다. 백산면 관내에서 유일하게 100세가 넘은 강순례 어르신(1918년생) 대에 백산면장과 맞춤형복지팀장이 방문해 축하물품인 제습기와 내외를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